연중 제15주일 강론(2019년 7월 14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한 기계체조 금메달 유망주가 고난이도의 기술을 연습하다 턱이 먼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일어서려고 발버둥 쳤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순간 몸의 감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척추 신경조직이 손상된 것입니다.

그는 여덟 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열한 살 때부터 배운 기계체조로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속도로 기량이 향상되어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볼 정도였었는데, 그러던 그가 부상으로 전신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장장 9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1년정도의 재활 치료를 하고 나서, 혼자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손가락 하나 구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인생의 꿈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선교사로부터 “하느님은 각자의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떠한 시련도 다 하느님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겨낼 수 없는 시련은 주시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하고 생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도를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었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이 시련은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우라고 주님께서 주신 은총이야. 나는 의사가 되어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어!”

부모님은 그런 몸으로 어떻게 의사가 되겠느냐며 말렸지만, 그의 확신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몇 개만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재활을 병행하며 그는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의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인턴과정도 수석으로 마치고, 미국 최고의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가 됩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 의사 이승복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도 재활을 해야만 하는 처지이면서도 겨우 눈만 깜빡이는 아이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너 내가 휠체어에 있는 것 보이지? 나는 체조 선수였어. 예전에 한국 대표로 올림픽에서도 뛰었지. 올림픽을 위해 연습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어.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러고 싶진 않았단다. 나는 너를 도와줄거야. 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하느님께서 널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널 사랑해주는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네 곁에 있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너를 돕고 있어. 계속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자. 알았지?”

이렇듯 세상에는 자신의 불행이나 시련에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려운 처지이면서 오히려 남들을 돕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져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돕고 자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 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아주 가파르고 좁고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기 직전까지 몰립니다.

사제와 레위인이 모두 그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지만, 모두 그냥 지나쳐갑니다. 사제와 레위지파의 사람은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지나쳐 갑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그 상황에 함께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못 본체 지나갑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인들이 가장 업신 여기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했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아무 댓가도 바라지 않고.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보살펴 달라고 ‘두 데나리온’이나 줍니다. 혹시 모자라면 다음에 더 주겠다고 하면서.

두 데나리온은 당시의 화폐가치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땅에 와서 빌붙어 살면서, 이방인으로 멸시 당하면서 살았던 소수 민족이었죠.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도 어디서 죽어라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돈 벌러 길을 떠났는지도 모르죠.

그런 그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도와줍니다. 그것도 자신을 늘 멸시하고 없신 여겼던 그 짜증나는 유다인에게 말입니다. 진짜 아무 댓가도 바라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댓가도 없는 일을 합니까? 내게 이익이 별로 안 된다거나 손해 볼일은 절대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 사랑을 하는데 있어서, 나의 기준에 맞추어 상대를 내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기가 막힙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가서 그렇게 몸소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다고 언성을 높이고 다투고, 잘났다고 싸우고, 대들고, 고집 부리고, 이기적으로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감싸주고,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랬습니다. 고린토 전서 13장.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혹시 마음 안에 따뜻한 사랑은 하나도 없으면서 요란한 징이나 꽹과리 소리만 내는 사람은 아닌가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